



ACC, 아름다운 밤을 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미디어파사드 창제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경이 아름다운 ACC 전경. <광주일보 DB>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빛고을의 야간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아시아문화전당(ACC)이 아시아문화원(ACI)과 함께 관광 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ACC는 13억원을 들여 평화를 주제로 한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창제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야간 야외 콘텐츠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복안이다. 특히 미디어아트 상징 조형물과 관광객 반응형 AI(인공지능) 콘텐츠,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관점의 미디어아트를 체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ACC는 디지털 야간 문화경관을 조성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기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광주시 동구청과 광주문화재단 등 9개 유관기관이 연계해 문화전당 권역을 국제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의 조지와 연계돼 있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공연과 전시 등 연간 261종

'미디어파사드' 창제작 사업 추진 미디어아트 체험·공공 미술 투어 옥상정원 '하늘마당' 새단장도 '빛의 숲' 건축물 코스 눈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관 이후 작년 12월까지 모두 1014만 명이 찾은 만큼 문화명소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해 한국 이색 지역 명소 30선에 이어 올해 한국 야간 관광명소 100선에 ACC를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ACC는 전당의 명소뿐 아니라 광주 시민의 명소로 각인된 잔디 옥상정원 '하늘마당'도 새롭게 단장한다. 노을과 도심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규격화된 라미네이트 컬러칩을 엮어,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공간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색상을 가미해 움직임은 강조하는

동시에 픽셀들의 부딪힘을 매개로 소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동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한 조치와도 연관돼 있다. ACC는 오는 6월까지 상가 이용객에 대한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문화상품 판매 외에도 문화산업 시설 유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가상현실(VR) 게임장과 서점-카페 등을 운영할 사업자를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문화전당은 이들 영업시간을 야간까지 늘려 '밤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에스컬레이트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맞물린 전략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야간 경관과 접목하는 것이다. ACC는 시설물 개선과 함께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축제 프로그램에 야간 콘텐츠를 확대해 복합형축제(주야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개방형 문화장터 '아시아컬처마켓'을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일 격주 금·토·일(오후 5시~밤 9시까지) 하늘마당과 구름다리(플라자브릿지)에서 연다. 문화상품존, 버스킹존, 먹거리존, 청년스타트업존 등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관광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빛의 숲' 개념으로 설계된 ACC를 설명하는 건축물 코스도 중요 테마다. 53개의 채광창과 트랙정원(성큰가든)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투사되는 조명이 만들어낸 풍광은 하나의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밖에 ACC는 주요 시설과 경관을 둘러보는 주제 여행도 다채롭게 운영한다. 'ACC 산책투어', 'ACC 체험+투어', 'ACC 공공미술 투어', 'ACC 백스테이지 투어' 등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제공한다. 이들 투어는 ACC의 자연을 중심으로 투어 동선을 만들어 도심 속 소풍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국보급 문화재 저작권 교육동영상 콘텐츠 무료로 이용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동영상 '백제금동대향로'

반가사유상과 백제금동대향로 등 국보급 문화재를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고, 저작권 교육 동영상 콘텐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저작권 관련 총 28개 교육과정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은 누리집 '온라인 학습 영상자료실'을 통해 국립박물관 전시·교육 콘텐츠 150종을 선별해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반가사유상, 백제금동대향로 등 국보급 문화재와 이집트·핀란드의 세계문화,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용 역사 애니메이션, 청소년용 진로 탐색 영상, 교사용 문화재 심화강의자료 등도 포함해 학생과 교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박물관은 학교 수업에 활용이 용이한 콘텐츠 150종을 선사부터 통일시대 시기, 고려부터 대한제국 시기, 다른 나라와 지역, 박물관의 세계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는 '어린이 온라인 교육자료' 바로가기(메뉴)를 통해 한국, 필리핀, 인도, 태국 등 어린이박물관 '다문화꾸러미' 콘텐츠 약 120건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관련 학습교재, 활동지, 자료정보카드, 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콘텐츠를 구분했다.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등 초·중·고교생을 위한 기초교육, 표절 예방 등을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있다. 각 교육과정별 3~15개의 동영상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10분 내외 분량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콘텐츠를 원하는 학교나 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잔잔·여운·감동...여성의 삶 재조명 영화 개봉

여성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비롯해 크로스 젠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등이 광주극장, CGV에서 개봉한다. 15일 개봉하는 '라라걸'은 2015년 멜버른 컵(경마대회) 우승자 미셸 페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멜버른 컵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미셸의 도전을 그렸다. 155년 역사상 여성 참가자가 단 4명 뿐이었던 '멜버른 컵'에서 조롱과 한계에 마주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다. 레이첼 그리피스 감독과 각본가 엘리스 맥크레디, 그리고 테레사 팔머가 주연인 미셸 역을 맡아 여성감독, 작가, 주연배우가 모두 여성인 '트리플 F등급' 영화로도 주목받았다. 16일 선보이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는 서

점에서 일하는 주인공과 그의 여자친구 사치코, 주인공의 룸메이트 시즈오 등 친구와 연인 사이인 세 남녀의 청춘 스키테를 그린 영화다.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31회 도쿄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키네마준보 일본영화 베스트10에 올랐다. 23일 개봉하는 '바람의 언덕'은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던 엄마와 딸이 만나는 이야기다. 엄마가 되는 것이 두려워 새 삶을 찾아 나섰던 여자 영분과 엄마가 지어준 이름처럼 씩씩하게 살며 외로움을 이겨내던 딸 한희의 이야기를 담은 클래식 드라마다. '돌꽃', '스틸 플라워', '재꽃' 등 3부작을 통해 작가주의 감독으로 떠오른 박석영 감독의 신작으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제45회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15일 '라라걸'
- 16일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 23일 '바람의 언덕'
- '애프터 웨딩 인 뉴욕'

같은날 만나볼 수 있는 '애프터 웨딩 인 뉴욕'은 인도에서 아동 재단을 운영 중인 이자벨이 뉴욕의 거대 미디어 그룹 대표 테레사로부터 후원금을 제안받는 동시에 그녀의 딸 그레이스의 결혼식에 초대받게 되면서 밝혀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원작 '애프터 웨딩' (2006)과 달리 두 주연배우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크로스 젠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다.



'라라걸'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유산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